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317-354
<https://doi.org/10.29212/mh.2026..140.31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논문 3

932년 후백제의 해상 공세와 고려의 대응

송영대 |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조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예성강·경기만 수로의 군사적 가치
 3. 932년 예성강 기습의 전개와 군사적 효과
 4. 예성강 기습 이후의 해상 공세와 고려의 대응
 5. 맺음말

초 록 본고는 932년 9월 후백제의 예성강 기습과 같은 해 10월의 대우도 공격을 연속적인 해상 공세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고려의 대응과 해상 작전 능력의 회복 과정을 검토한 것이다.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는 개성과 서해를 잇는 주요 교통로였다. 예성강 하류의 포구들은 대외 교통과 사행의 거점이었지만, 전시에는 외부 선단의 수도권 접근로로 전환될 수 있었다. 후백제는 932년 9월에 수군을 동원하여 예성강에 진입한 뒤, 염주·백주·정주의 선박 100척을 불태우고 저산도의 목마 300필을 탈취하였다. 염주·백주·정주는 개성과 가까운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권에 위치하여 고려의 선박 집결지이자 해상 작전 기반으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안 약탈이 아니라 고려 수도권의 해상 기반과 군사 자원을 함께 타격한 작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발성 전투 기록까지 고려하면 예성강 기습은 개성 외곽의 방어망을 위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같은 해 10월의 대우도 공격은 후백제의 해상 공세가 예성강 기습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후속 공세였다. 대우도의 위치는 당시 전황을 고려하여 경기만을 포함한 서해 중부 해역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유검필은 곡도와 포을도에서 장정을 선발하고 전함을 수리하여 해상 방어태세를 정비하였다. 935년 유검필이 예성강에서 출항하여 나주를 경략한 사실은 고려가 서남해 방면의 해상 작전 능력을 회복하였음을 보여준다. 회복된 나주 해상로는 이후 진현의 귀순 과정에서도 활용되었다. 결국 932년의 해상 공세는 고창 전투 이후 불리해진 정세를 반전시키려는 후백제의 전격적인 작전이었다. 후백제는 고려 수도권의 해상 기반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이를 지속적인 해상 우위로 연결시키지 못한 반면, 고려는 해상 방어력을 재정비하여 나주 해상로를 회복하였다.

주제어 : 예성강 기습, 대우도 공격, 후백제 해상 전략, 고려 수군, 경기만 수로, 나주 해상로, 유검필, 후삼국 통일전쟁

1. 머리말

후삼국시대의 전쟁은 육상에서의 전투로만 전개되지 않았다. 왕건의 나주 장악, 후백제의 서해안 활동, 932년 예성강 기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상 교통로와 수군 운용은 후삼국시대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특히 해상 기습은 방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과 장소에서 전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세를 흔드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후백제와 고려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927년 공산 전투를 통해 후백제가 후삼국시대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렇지만 930년 고창 전투 이후 신라 방면의 정세가 고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후백제는 기존의 육상 전선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세를 흔들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32년 예성강 기습전은 고려의 수도권 해상 관문을 직접 타격한 사건으로, 고창 전투 이후 후백제가 정세를 반전시키려는 의도에서 수행한 작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삼국시대 해상 활동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932년 예성강 기습 자체를 중심에 두고 작전 목표와 파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 예성강 기습은 대체로 3가지 맥락에서 다루어졌다. 후백제 수군의 활동과 해상 전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성강 기습전의 군사적 성격을 주목한 연구가 있다.¹⁾ 후삼국 통일전쟁의 전개 속에서 고창 전투 이후 후백제의

1) 신성재, 「후백제의 수군활동과 전략전술」, 『한국중세사연구』 36, 한국중세사학회, 2013 ; 邊東明, 「後百濟의 海上活動과 對外關係」, 『한국고대사탐구』 19,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5 ;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해양쟁패전」, 『한국중세사연구』 47, 한국중세사학회, 2016.

반격 또는 해상 공세로 예성강 기습전을 이해한 연구가 있다.²⁾ 아울러 고려 수군의 붕괴와 재건이라는 관점에서 932년 예성강 기습과 이후 유점필의 역할을 검토한 연구가 있다.³⁾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후백제의 해상 활동이나 후삼국 통일 전쟁의 큰 흐름 속에서 예성강 기습을 부분적으로 다루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같은 해에 전개된 후백제의 해상 공세와 이에 맞선 고려의 해상 방어력 재정비와 나주 해상으로 회복까지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고에서 말하는 예성강 기습의 전략적 의미는 단순히 후백제가 고려의 선박과 목마를 탈취하였다는 전술적 성과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첫째로 고창 전투 이후 불리해진 정세를 해상 공세로 반전시키려고 한 후백제의 정세 반전책이었다. 둘째로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를 이용하여 고려 수도권의 해상 접근로를 직접 타격한 작전이었다. 셋째로 염주·백주·정주의 선박과 저산도 목마를 공격함으로써 고려의 해상 작전 기반과 군사 자원을 약화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나주 방면을 포함한 서남해 재진출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예성강 기습전은 후삼국 통일전쟁 속에서 후백제가 구사한 전격적인 해상 공세의 대표적 사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의 군사적 가치를 살펴보고, 이어 932년 예성강 기습의 전개와 공격 대상 및 발성 전투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해 대우도 공격과 고려의 대응을 분석하겠다.⁴⁾

2) 이도학, 『후삼국시대 전쟁 연구』, 주류성, 2015, 371~379쪽 ; 신성재, 「후삼국 통일전쟁과 운주전투」, 『軍史』 11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3) 이창섭, 「고려 건국 직후 수군의 붕괴와 재건」,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7,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21.

4) 후삼국시대 해상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료가 제한적이므로, 본고에서는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 지리지 및 중국 사행 기록을 함께 활용하였다.

2. 예성강 · 경기만 수로의 군사적 가치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는 개성과 서해를 연결하는 교통과 교역의 통로이면서, 전시에는 외부 선단이 고려의 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군사적 수로였다. 932년 후백제의 예성강 기습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수로가 고려의 성장과 해상 활동의 기반이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수도권 방어와 해상 공세가 교차하는 공간이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성강은 고려를 건국한 왕건과 개성의 세력이 일찍부터 성장의 거점으로 삼았던 강이다. 왕건 이전부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예성강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모습은 『高麗史』 「高麗世系」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예성강이 어떤 의미를 가진 강인지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⁵⁾

A-1. 唐 肅宗 황제가 왕위에 오르기 전 산천을 두루 유람하고자 하여 明皇(唐 玄宗) 天寶 12년 癸巳年(753) 봄에 바다를 건너 溟江의 서쪽 나루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썰물이 되어 강가 개펄에 따라온 신하들이 배 안에서 돈을

다만 이러한 자료는 932년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의 장기적인 지리적 조건과 항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교 자료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 5) 예성강과 그 주변에 대한 현존 자료는 상당수가 고려 후기 혹은 조선시대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932년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예성강 하구와 경기만 수로가 개성으로 이어지는 주요 해상 통로였다는 지리적 조건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예성강 기습의 작전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꺼내어 뿌리고 이에 언덕으로 올라갔다. 뒤에 그 나루터의 이름을 錢浦라 하였다.⁶⁾

A-2. 禮成江[부 서쪽 30리에 있다. 황해도 江陰縣 助邑浦의 하류가 부의 서쪽에 이르러 梨浦가 되고, 또 錢浦가 되며, 또 碧瀾渡가 되고, 또 동쪽으로 예성강이 되어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고려에서 송나라에 조회할 때에 모두 여기서 배를 띄우기 때문에 禮成이라 하였다.]⁷⁾

A-1에서는 당 숙종이 신라에 왔을 때 湔江의 西浦로 들어왔으며, 이를 錢浦로 개명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전포가 예성강 하류의 주요 포구로서 왕건 이전부터 외부 선박의 진입로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A-2에서는 예성강에 있는 주요 포구로 梨浦와 전포, 碧瀾渡가 제시되었다. 아울러 고려에서 송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여기에서 배를 띄우기에 예성강이라는 명칭이 유래하였다고 밝혀 놓았다. 외부에서 고려로 오는 선박이 예성강을 통해 들어오고, 고려에서도 정기적으로 해외에 사신선을 띄울 때 예성강에서 출발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예성강 하류에 여러 포구가 자리하였다는 사실은 이 일대가 선박과 인원이 집결하는 교통의 기반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포구들은平時에는 교류와 출항의 거점이었지만, 戰時에는 선박과 물자를 장악하거나 파괴하려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예성강을 끼고 있는 개성은 일찍부터 교류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이다. 때문에 고려 건국 이전에도 개성은 지역의 거점으로 주목

6) 『高麗史』, 「高麗世系」. “唐肅宗皇帝潛邸時 欲遍遊山川 以明皇天寶十二載癸巳春 涉海到湔江西浦 方潮退 江渚泥淖 從官取舟中錢 布之 乃登岸 後名其浦爲錢浦”.

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 「開城府 上」, 山川. “禮成江[在府西三十里 黃海道江陰縣助邑浦之下流至府西爲梨浦 又爲錢浦 又爲碧瀾渡 又東爲禮成江]”.

받았다. 이에 弓裔는 897년에 개성 즉 松岳郡을 도읍으로 삼게 되었다. 『三國史記』에서는 그 이유로 漢水 이북에서 山水가 기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여,⁸⁾ 풍수지리로 인하여 도읍을 정한 것처럼 기술하였다. 풍수지리의 영향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도읍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측면에서 서술된 기록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궁에는 개성이 해상 교통에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도읍으로 정했던 것으로 여겨진다.⁹⁾

「新羅本紀」 孝恭王條를 보면 898년에 溟西道와 漢山州 관내의 30여 성을 차지하고 송악군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하였다.¹⁰⁾ 이는 패서도와 한산주 관내 30여 성을 관할할 수 있는 중심지가 개성이기 때문에 도읍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성은 패서도와 한산주 북부를 통제하는 육상 거점이면서, 예성강을 통해 경기만과 연결되는 해상 거점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개성은 태봉 때부터 정치적·군사적 중심지로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기만은 오늘날의 황해도 남부와 경기도의 서부에 해당하며, 한강·임진강·예성강의 하구가 만나는 서해 중부의 연안 해역이다. 경기만은 해안선의 출입이 심하고 섬이 많으며, 주요 만입으로 강화만·인천만·남양만·아산만 등이 있으며, 반도로는 김포반도·인천반도·화성반도 등이 있다.¹¹⁾ 경기만으로 진입한 선박은 그 의도에 따라 예성강이나 한강은 물론,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수도 있었다. 고려가 일상적으로 활용하였던 해상 교통로였다는 점은, 역으로 적의 기습적인 접근에 경계가 취약할 수 있는 조

8) 『三國史記』 卷50, 「列傳」 10, 弓裔. “善宗謂松岳郡漢北名郡 山水奇秀 遂定之爲都 擊破孔巖·黔浦·穴口等城”.

9) 신성재,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해안, 2016, 21쪽.

10)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 12, 孝恭王 2년. “秋七月, 弓裔取溟西道及漢山州管内三十餘城, 遂都於松岳郡.”

11)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리지 수도권편』,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7, 93쪽.

건이기도 하였다. 더구나 오늘날 강화도와 달리 당시에는 여러 섬으로 나뉘어져 있었기에 이를 완전히 제어하지 않는다면 적의 갑작스러운 침투로 인하여 기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의 군사적 가치는 外海와 內灣, 江口와 내륙 수로가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복합적인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서해가 외해에 해당한다면, 경기만은 육지와 가까운 내만이자 內海라 할 수 있으며, 예성강 하구는 강구이며 이는 곧 내륙 수로로 이어진다. 이러한 복합 항로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은폐와 우회, 기습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에 해당한다. 방어하는 입장에서 도 서지역은 물론 주변의 포구와 하구를 통제해야 하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 여기에 충분한 병력을 주둔하여 적극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고려가 예성강과 경기만을 성장과 해상 활동의 기반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공간은 교통·교역·출항의 통로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로는 방어체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외부 선단의 침투로 전환될 수 있었다.

예성강 하류에는 벽란도라는 항구가 있었다. 벽란도는 고려가 국제교류를 하였던 거점으로, 이와 관련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宋史』, 『高麗圖經』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사서에 기재된 벽란도에 대한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B-1. 碧瀾渡[부 서쪽 36리에 있다. 『宋史』에, “急水門에서 또 3일 만에 언덕에 닿으니, 碧瀾亭이라는 객관이 있으며, 여기서부터 육지에 올라 험난한 40여 리를 가면 바로 國都이다.”라고 한 것이 이곳이다. 정자 이름을 지금 息波亭이라 한다. 權近의 기문에, “松都 서북쪽 여러 골짜기의 물이 모여 긴 강이 되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나루터를 벽란이라 한다. 국도에 가까우므로 건너

다니는 사람이 많고, 산에 가깝기 때문에 흐름이 빠르고 바다에 가깝기 때문에 조수가 세계 밀려서 건너는 이들이 또한 매우 괴롭게 여긴다. 나라에서 관원을 두어 맡겼는데, 강 언덕을 따라 내려가면 옛날에는 草樓가 있었으니, 나루터 일을 맡은 관원이 거처하는 곳이었다. 강은 바다 하늘에 닿아 있고 산은 들판을 가로질러 구불구불하여 아득히 멀어 바라봄에 끝이 없으니, 형세의 뛰어나미 제일이라고 할 만하다.”¹²⁾

B-2. 明州 定海에서 順風을 만나면 3일 만에 바다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또 5일이면 墨山에 도달하여 高麗 국경에 들어갈 수 있었다. 묵산에서 섬들을 통과하여 礁石 사이를 이리저리 헤치고 나가면 배의 운행은 매우 빨라 7일 만이면 禮成江에 다다랐다. 예성강은 양쪽 산 사이에 있는 石峽으로 묶인 까닭에 강물이 소용돌이치면서 흐르는데, 이것이 이른바 急水門으로서 제일 험악한 곳이다. 또 3일이면 기슭[岸]에 닿으며, 碧瀾亭이란 客館이 있다. 使人은 여기에서 육지에 올라 험한 산길을 40여 리쯤 가면 고려의 國都라고 한다.¹³⁾

B-3. 神舟가 禮成港에 도달하고 나서 닻을 내리는 일이 끝나면 고려인이 채색을 베푼 배를 가지고 와서 맞이한다. 使者가 조서를 받들고 상륙하면 三節이 걸어서 따라가 碧瀾亭에 들어가서 조서를 봉안하는 일을 끝내고 물러가 묵는 곳에서 쉰다. 이튿날 새벽에 都轄官과 提轄官이 조서를 마주 받들고 채색 가마에 들어가면 군대의 의장이 앞에서 인도

1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 「開城府 上」, 山川. “碧瀾渡[在府西三十六里 宋史自急水門 又三日抵岸 有館曰碧瀾亭 由此登陸 崎嶇四十餘里 乃其國都 者是 亭名今稱息波 權近記 松都西北眾壑之水 會爲長江 流入于海 其渡處曰碧瀾 近國故涉者眾 近山故流駛 近海故潮悍 而涉者亦甚病 國家爲置官以掌之 濱江岸下 舊有草樓 掌渡者所寓也 江接海天 山橫野隴 紆餘渺漫 極目無際 形勢之勝 可謂最矣”.

13) 『宋史』 卷487, 「列傳」 246, 外國 3, 高麗. “自明州定海遇便風 三日入洋 又五日抵墨山 入其境 自墨山過島嶼 詰曲礁石間 舟行甚駛 七日至禮成江 江居兩山間 束以石峽 湍激而下 所謂急水門 最爲險惡 又三日抵岸 有館曰碧瀾亭 使人由此登陸 崎嶇山谷四十餘里 乃其國都云”.

한다.¹⁴⁾

B-1에서는 벽란도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정리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송사』를 제일 앞에 인용해 놓았다. 해당 내용의 원본은 B-2이다. 이에 따르면 明州 → 墨山 → 禮成江 急水門 → 碧瀾亭 → 國都라고 하여 송나라에서 개성으로 가는 경로를 기술해 놓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개성의 주요 항구로 벽란도와 전포 이외에 梨浦와 新里東方浦도 기재되었다. 이 중에서도 대외 교역의 주요 항구로 활용된 곳은 벽란도였다.

이러한 사실은 B-1·2는 물론 B-3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에 사신으로 온 徐兢은 禮成港으로 입항하고 碧瀾亭으로 들어섰다고 하였다. 즉 벽란도를 통해 개성으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벽란도가 후삼국시대에도 크게 활용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기록들은 예성강 하류의 포구가 개성과 경기만을 잇는 교통 거점이었음을 보여준다.

벽란도·전포·이포 등 주요 항구가 위치한 예성강 하류는 개성과 서해를 연결하는 교통과 교역의 기반이었다. 동시에 선박과 인원이 집결하고 개성으로 이어지는 수륙 교통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공간이었다. 평시의 교통과 교역 상의 이 점은 전시에는 외부 선단이 고려 수도권과 연결된 권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취약성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따라서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의 군사적 가치는 고려의 해상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면서, 공격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방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932년 후백제의 예성강 기습은 바로 이러한 방어상의 취약성을 이용한 작전이었다.

14) 『宣和奉使高麗圖經』卷24, 「節仗」, 初神旗隊. “神舟既抵禮成港 下碇訖 麗人 具采舟 來迎使者 奉 詔書登岸 三節步從 入碧瀾亭 奉安 詔書訖 退休于所舍 明日質明 都轄提轄官 對捧 詔書 入采輿 兵仗前導”.

3. 932년 예성강 기습의 전개와 군사적 효과

앞 장에서는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가 개성과 서해를 연결하는 교통로이면서, 수도권 방어와 해상 공세가 교차하는 군사적 공간이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932년 9월 후백제의 예성강 기습은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의 이중적인 성격이 군사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예성강 기습은 930년 고창 전투 이후의 정세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창 전투 이후 신라 방면의 정세가 고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후백제는 기존의 육상 전선만으로 정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려 수도권의 해상 기반을 직접 타격한 예성강 기습은, 후백제가 육상 전선의 불리함을 해상 공세로 보완하려 한 정세 반전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932년 예성강 기습의 기록과 사전 정보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격 대상이 된 鹽州·白州·貞州와 猪山島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후백제 수군의 진입 방식을 살펴보고, 발성 전투 기록을 통해 이 사건이 개성으로 이어지는 해상 접근로와 외곽 방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다.

- C-1. (927년) 12월 甄萱이 왕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지난번에 新羅의 國相 金雄廉 등이 장차 足下를 王京으로 불러들이려 한 것은 작은 자라가 큰 자라의 소리에 호응하는 것[鼈應龜聲]과 같은데, 이는 메추라기가 송골매의 날개를 쫓고자 달려드는 것[鷄披隼翼]과 같아 반드시 生靈을 塗炭에 빠지게 하고 社稷을 폐허로 만들 수 있는 행위였소.”¹⁵⁾

15)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10년 12월, “十二月 甄萱寄書于王曰 昨

C-2. (932년) 가을 9월에 甄萱는 一吉飡 相貴로 하여금 수군을 이끌고 고려 禮成江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3일을 머물면서 鹽州·白州·貞州 3州的 배 100척을 빼앗아 불태우고, 猪山島에서 기르는 말 300필을 잡아서 돌아왔다.¹⁶⁾

후백제는 왕건의 즉위를 축하하거나 예물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는 양국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외교적 접촉을 지속하였음을 보여준다.¹⁷⁾ 아울러 외교적 접촉에는 상대의 동향을 파악하고 양국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¹⁸⁾ 927년 이전에 후백제에서 고려로 사신을 보낸 사례는 918년 왕건의 즉위 축하,¹⁹⁾ 920년 孔雀扇과 竹箭 선물,²⁰⁾ 924년 絶影島 驄馬 선물²¹⁾의 3차례가

者 新羅國相金雄廉等 將召足下入京 有同鼃應鼃聲 是欲鷄披隼翼 必使生靈塗炭 社稷丘墟”. 이 당시에 작성한 국서는 최승우가 지은 「代甄萱寄高麗王書」이다. 『三國史記』 卷46, 「列傳」 6, 崔承祐. “後爲甄萱作檄書移我太祖”; 『東文選』 卷57, 「書」, 代甄萱寄高麗王書 崔承祐.

- 16) 『三國史記』 卷50, 「列傳」 10, 甄萱. “秋九月 萱遣一吉飡相貴 以舡兵入高麗禮成江 留三日 取鹽·白·貞三州船一百艘焚之 捉猪山島牧馬三百匹而歸”.
- 17) 후백제 사신단이 이용한 구체적인 이동로는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완산주에서 개성까지는 육로와 해로 모두 이동이 가능하였다. 다만 후백제가 서해안에서 지속적으로 해상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사행이 해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후백제 사신이 해로를 이용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검토하였음을 밝힌다.
- 18) 후삼국시대의 외교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김수태, 「후백제의 대신라·고려 관계」, 『한국중세사연구』 41, 한국중세사학회, 2015.
- 19)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원년 8월. “甄萱遣一吉粲閔郃 來賀即位 命廣評侍郎韓申一等 迎于甘彌縣 郃至 厚禮遣之”.
- 20)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3년 9월. “秋九月 辛丑 甄萱遣阿粲功達 獻孔雀扇·智異山竹箭”.
- 21)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7년 8월. “八月 甄萱遣使 來獻絶影島驄馬一匹”.

있었다.²²⁾

C-1에 수록된 927년 12월의 사신 파견은 기존의 사신 왕래와는 다른 위압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이는 927년 9월에 후백제가 공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 후백제는 공산 전투의 승리를 自讚하면서 崔承祐에게 國書를 작성하여 보내게 하였다. 이에 대해 고려는 이듬해인 928년 정월에 答書를 작성하여 후백제의 사신 편으로 돌려보냈다.²³⁾ 이 사건은 외교 사신의 왕래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백제가 927년 이전에 파견한 3차례의 사행 가운데 일부가 해로를 이용하였다면, 사신단은 완산주에서 서해안을 따라 경기만을 거쳐 예성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진입로의 지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927년 12월에 후백제의 국서가 전달된 뒤, 고려의 답서가 이듬해 정월에 작성되었는데, 이 동안 후백제 사신단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후백제는 공산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통일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으므로, 후백제가 예성강 하구와 경기만 수로의 지리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C-2는 『삼국사기』 甄萱傳으로 932년 9월에 一吉 飡 相貴가 염

22) 이 외에 925년 10월 고려와 후백제가 曹物郡에서 싸웠을 때, 후백제에서 外甥 眞虎를 인질로 보내자, 왕건이 堂弟 元尹 王信을 인질로 보낸 사례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전투 직후 육상에서의 인질 교환이었을 가능성도 있기에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8년 10월. “乙亥 王自將 及甄萱戰于曹物郡 黔弼引兵來會 萱懼乞和 以外甥眞虎爲質 王亦以堂弟元尹王信交質 以萱十年之長 稱爲尙父 新羅王聞之遣使曰 萱反復多詐 不可和親 王然之”.

23)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11년 1월. “是月 王答甄萱書曰 伏奉吳越國通和使班尙書所傳詔書一道 兼蒙足下辱示長書敘事者 伏以 華輶膺使 爰致制書 尺素好音 兼承教誨”. 『동문선』에서는 이 답서를 「代高麗王答甄萱書」라고 명명하였으나 作者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東文選』 卷57, 「書」, 代高麗王答甄萱書 無名氏.

주·백주·정주를 공격하여 배 100척을 불사르고, 저산도를 공격하여 말 300필을 확보하였다고 기록되었다. 『三國遺事』에서는 후백제에서 一吉을 보내 염주·백주·眞州를 공격하여 3州의 배 100여 척을 취하고 불사르고 돌아갔다고 하였다.²⁴⁾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도 C-2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되, 一吉飡이 一吉粦으로 표기된 정도에서만 차이를 보인다.²⁵⁾

C-2에서 염주·백주·정주는 각각 현재의 황해도 연백, 배천, 개성 풍덕 일대로 비정된다.²⁶⁾ 이 지역들은 개성과 가까운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권에 위치하였으며, 왕건 세력의 성장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반 권역이었다. 「고려세계」에서 白州正朝 劉相晞가 作帝建을 위해 永安城을 축조할 때 開州·정주·염주·백주의 백성들이 동원되었고,²⁷⁾ 918년에 평양이 황폐하자 염주·백주 등의 백성을 옮겨 大都護府를 세워 西京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었다.²⁸⁾ 이는 이 지역들이 왕건 세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백제가 염주·백주·정주의 선박을 공격한 것은 단순히 지방 포구를 약탈한 것이 아니라, 개성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해상 접근 권역을 타격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24) 『三國遺事』卷2, 「紀異」 2, 後百濟 甄萱. “長興三年……(中略)……秋九月萱遣一吉以舡兵入高麗禮城江留三日 取塩・白・眞三州船一百艘焚之而去[云云]”.

25) 『高麗史』卷2, 「世家」 2, 太祖 15년. “九月 甄萱遣一吉粦相貴 以舟師入侵禮成江 焚塩・白・眞三州船一百艘 取猪山島牧馬三百匹而歸”; 『高麗史節要』卷1, 太祖 神聖大王 15년. “九月 百濟遣一吉粦相貴 以舟師入侵禮成江 焚塩白眞三州船一百艘 取猪山島牧馬三百匹而歸”.

26)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역주 삼국사기 2: 번역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840쪽.

27) 『高麗史』, 「高麗世系」. “白州正朝劉相晞等聞曰 作帝建娶西海龍女來 實大慶也 率開・貞・塩・白四州 江華・喬桐・河陰三縣人 爲築永安城 營宮室”.

28) 『高麗史』卷58, 「志」 12, 北界, 西京留守官 平壤府. “太祖元年 以平壤荒廢 量徙鹽・白・黃・海・鳳諸州民 以實之 爲大都護府 尋爲西京”.

이러한 해석은 후대의 수도권 방어 체계와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전근대 국가에서 수도 방어는 도성 내부의 방비만으로 완결되지 않았으며, 수도로 접근하는 주변 권역과 교통로의 통제를 함께 요구하였다. 고려시대에도 京畿 즉畿內는 수도를 행정·재정·유통 측면은 물론 군사적 측면에서도 보위하는 주변 권역이었으며,²⁹⁾ 조선시대에는 4부 留守府 체제를 통해 도성 방어와 긴밀한 상보적 관계를 구축하였다.³⁰⁾ 고려 경기제와 조선의 4유수부 체제를 932년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후대의 사례는 수도 방어가 도성 내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수도 주변 권역과 교통로를 통제하는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염주·백주·정주는 개성으로 이어지는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권에 위치한 해상 접근 권역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일대는 예성강과 서해안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고려의 선박 집결지이자 해상 작전 기반으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고려가 후백제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성강 하구와 경기만 일대는 개성과 가까운 해역이었으므로, 고려가 일정한 감시와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C-2에 따르면 염주·백주·정주에는 고려의 선박 100척이 있었으므로, 후백제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였다면 즉시 군대를 기동하여 대적하였을 수 있다. 더구나 후백제 선단은 오늘날의 전북·충남·경기 서해안을 따라 북상해야 했으며, 만경강 하구에서 예성강 하구까지 거리는 약 250km 정도나 된다.³¹⁾ 航行을 하던 고려의 선

29) 정은정, 「고려 개경과 경기의 공간구조와 변동」, 『한국중세사연구』 85, 한국중세사학회, 2026, 138쪽.

30) 李王茂, 「조선후기 수도권 방위체제의 정비와 군사도시화 경향」, 『軍史』 9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4, 101쪽.

31) 후백제 선단의 출발지는 후백제의 서해안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료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거점이 어디였는지는 현재 명확하게 알

박들이 후백제 船團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현존 기록에서는 고려가 후백제 선단의 접근을 사전에 포착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후백제 선단이 고려의 감시망을 피해서 전격적으로 접근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후삼국시대의 관련 사료에서는 서남해안 이외에 후백제의 항구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후백제 선단의 정확한 출발점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정황으로 보았을 때, 후백제는 중간 기착을 최소화한 채 서해 바깥을 이용하여 예성강 하구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제시하였던 B-2의 기록이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明州 定海에서 순풍을 만나면 3일이면 바다(洋), 다시 5일이면 墨山 즉 黑山島에 도달하며, 다시 7일이면 예성강에 이르고, 급수문을 지나 3일이면 기슭에 도착하여 碧瀾亭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 기록을 후백제의 사례에 곧장 대입하기는 어려워도, 비슷한 항로를 사용하였다면 후백제 선단이 중간 기착을 최소화하고, 서해 바깥쪽을 이용하여 예성강 하구로 전격적으로 접근하였을 수 있다.³²⁾

후백제는 염주·백주·정주에서 배 100척을 빼앗아 불태웠다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전주와 인접한 만경강을 거리 산정을 위한 가정적인 기준점으로 사용하였다.

- 32) 송 사행 항로와 후백제의 진군로는 시대와 규모·성격이 달랐기에 동일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사하게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흑산도에서 만경강 하구까지 직선거리로 170km 정도가 되니, 기상 조건이 좋은 경우 바람을 잘 이용한다면 후백제의 선단은 급수문까지 4~5일이면 이동할 수 있으며, 벽란도까지 이동한다면 7~8일 정도로 고려할 수 있다. 즉 후백제 선단에게 일정한 군량과 보급이 있다면, 굳이 중간에 정박하지 않고 예성강 하구로 직접 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참고로 정진술은 『고려도경』의 기록을 통해 항로를 계산하여 서공의 일행이 6월 5일 군산의 비안도를 정박하였다가 6월 12일 예성항에 도착하였다고 보아서 7일 정도로 계산하였다.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韓國海洋戰略研究所, 2009, 346~347쪽.

하였다. 이 기록은 914년에 왕건이 정주에서 전함 70여 척을 수리해서 병사 2천 명을 싣고 나주로 원정을 간 기록을 상기시킨다.³³⁾ C-2에 기록된 932년의 船 100艘를 914년과 같은 戰艦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선박들은 고려가 해상 작전이나 병력·물자 수송에 활용할 수 있었던 주요 선박 자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염주·백주·정주에는 왜 배 100척이 있었을까? 이 선박들의 집결 목적은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고려의 해상 활동과 서남해 정세를 살펴보면, 이 선박들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었음은 검토할 수 있다. 927년 4월에 고려는 海軍將軍 英昌과 能式을 보내 康州를 공격하고 轉伊山·老浦·平西山·突山 등 4鄉을 함락시키는 전과를 내었다.³⁴⁾ 즉 남해안 일대까지 진출하여 후삼국시대의 制海權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지만 929년경에는 후백제에게 나주가 함락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935년에 왕건이 나주가 함락되어 6년 동안 海路가 통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던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⁵⁾

이러한 정세 속에서 후백제는 927년 공산 전투 이후, 과거 왕건에게 빼앗겼던 나주를 929년경에 다시 회복하였던 것이며, 이는 고려로서는 한반도 서남해안은 물론 남해안까지의 제해권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930년 고창 전투 이후 왕건에게 나주 회복은 중요한 군사적 과제로 남아 있었다. 914년 왕건이 정주에서 전함을 정비하여 나주로 출항한 전례와 935년 유검필의 나주

33)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總序. “就貞州浦口 理戰艦七十餘艘 載兵士二千人 往至羅州 百濟與海上草竊知太祖復至 皆懾伏莫敢動”.

34)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10년 4월. “夏四月 壬戌 遣海軍將軍英昌·能式等 率舟師往擊康州 下轉伊山·老浦·平西山·突山等四鄉 虜人物而還”.

35) 『高麗史』 卷92, 「列傳」 5, 諸臣, 庾黔弼. “十八年 太祖謂諸將曰 羅州界四十餘郡 爲我藩籬 久服風化 嘗遣大相堅書·權直·仁壹等往撫之 近爲百濟劫掠 六年之間 海路不通 誰爲我撫之”.

경략을 고려한다면, 염주·백주·정주의 선박들 역시 향후 서남해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선박 자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선박들이 집결해 있었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후백제가 이 선박들을 불태운 것은 고려의 서남해 진출에 필요한 선박 운용 능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나주 방면 해상로의 재개를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C-2에 따르면 후백제는 예성강에 들어가 3일 동안 머물렀다. 다만 기록이 소략하다보니, 이 3일이 예성강 기슭 전체의 작전 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염주·백주·정주 일대에서의 체류 기간만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염주·백주·정주 공격에 3일을 소요하였다면, 후백제가 사전에 공략 지점을 계획적으로 선정하였고, 치밀한 작전 아래 군대가 움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한 작전으로 규정할 수 있다.

C-2에 보이는 후백제의 공격 대상은 크게 3가지 층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염주·백주·정주의 선박 100척을 불태운 것은 고려의 해상 기동과 병력 수송에 활용할 수 있는 선박 자원에 대한 타격이었다. 둘째로 저산도 목마 300필의 탈취는 고려의 군사 자원과 보급 기반을 공격한 것이다. 셋째로 이 모든 작전이 예성강 하구와 경기만 수로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후백제의 공세가 고려 수도권의 해상 접근로를 겨냥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예성강 기슭은 단순한 연안 약탈이 아니라, 고려의 해상 작전 기반과 군사 자원을 타격하고 개성으로 이어지는 해상 접근로에 군사적 부담을 준 복합적인 해상 공세였다고 할 수 있다.

C-2의 기록은 후백제가 저산도를 공격하여 300필의 말을 잡아서 돌아간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저산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황해남도 은천군 대행면의 제도리의

저산도(제산도)로 보는 견해가 있다.³⁶⁾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거하여 安岳郡의 猪島로 보는 경우로, 기록에 따르면 저도는 안악군의 북쪽에 위치하며 목장이 있다고 하였다.³⁷⁾ 『大東輿地圖』에서는 대동강 하류의 河中島로, 長連의 경계에 위치한 것으로 표시되었다. 이와 달리 『輿圖備志』와 『大東地志』에서는 저산도를 角山으로 지목하였다.³⁸⁾ 『대동여지도』에서 각산은 배천 남쪽에 위치하며, 교동도를 마주 보는 해안의 봉화대로 표시되어 있다. 각산의 북쪽에는 하천을 따라 新浦가 있으며, 그 위에는 兔山이 자리하고 있다. 위치로 보아 육지와 연결한 섬이었으나, 훗날 간척으로 육지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저산도의 위치를 안악군의 저도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여도비지』와 『대동지지』에서는 저산도를 각산으로 비정하였고, 예성강 기슭이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안악군 저도의 위치가 염주·백주·정주에서 다소 북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배천 남쪽의 각산 일대를 저산도의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는 C-2에 직접 확인되는 후백제의 공격 대상과 작전 범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C-2와는 별도로 전하는 발성 전투 기록을 통해, 예성강 기슭이 개성 외곽 방어에 미친 영향을 보조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6)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기병 운영에 대한 검토」, 『軍史』 10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403쪽.

3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 安岳郡, 山川. “猪島 在郡北海中有牧場 新增 今廢”.

38) 『輿圖備志』 卷14, 「黃海道」, 白川郡, 戰略. “船一百艘取猪山島牧馬三百匹而歸 猪山島 今角山” ; 『大東地志』 卷17, 「黃海道」, 白川郡, 典故. “高麗太祖十五年 甄萱以舟師入侵禮成江 焚鹽·白·貞三州船一百艘 取猪山島[卽角山] 牧馬三百匹而歸”.

- D-1. 朴守卿은 平州 사람이고, 아버지는 大匡尉 朴遲胤이다. 박수경은 성품이 용맹하였고, 權智가 많았으며, 태조를 섬겨 元尹이 되었다. 백제가 자주 신라를 침략하자, 태조가 박수경을 장군으로 삼아 가서 진무하게 하였다. 진훤이 다시 쳐들어오자, 박수경이 거둬 기묘한 계책으로 무찔렀다.……(중략)…… 勃城 전투에서 태조가 포위를 당하였으나 박수경이 힘써 싸운 덕분에 탈출할 수 있었고, 또 태조를 따라 神劔을 정벌하였다.³⁹⁾
- D-2. 가을 8월에 司徒 朴守卿이 졸하였다. 수경은 성품이 용감하고 군세며 임기응변의 지혜가 많았는데, 태조를 섬겨 元尹이 되었다. 후백제가 신라를 자주 침략하니, 태조가 수경에게 가서 이를 진압하도록 명하였는데, 진훤의 두 번째 침략에 수경이 갑자기 기이한 계책을 써서 이를 격퇴하였다.……(중략)…… 勃城의 싸움에서 태조가 포위를 당했는데, 수경이 힘을 다하여 싸운 덕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경자년(940)에 전제를 정할 때에 수경에게 특별히 밭 200결을 주었다. 定宗이 즉위한 초기에 내란을 평정한 것은 대부분 수경의 공이었다. 그런데 이 때에 와서 아들 承位·承景·承禮가 참소를 입어 옥에 갇히니, 수경이 근심하고 분노하여 졸하였다.⁴⁰⁾

39) 『高麗史』 卷92, 「列傳」 5, 諸臣, 朴守卿. “朴守卿 平州人 父大匡尉遲胤 守卿性勇烈 多權智 事太祖爲元尹 百濟數侵新羅 太祖命守卿爲將軍往鎮之 值甄萱再至 守卿輒以奇計敗之……(中略)…… 勃城之役 太祖被圍 賴守卿力戰得出 又從太祖討神劔”. 참고로 본고에서는 『全韻玉篇』에서 甄의 讀音을 姓으로 읽을 때는 ‘진’으로 해야한다는 점에 의거하여, ‘진훤’ 대신 ‘진훤’으로 표기하였다. 왕평 편, 『표점 교감 전자배판 전운옥편(全韻玉篇)』, 도서출판3, 2016, 書影 41쪽. ‘진훤’으로 표기한 이유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이도학, 『후백제 진훤대왕』, 주류성, 2015, 25~28쪽.

40) 『高麗史節要』 卷2, 光宗 大成大王 15년. “秋八月 司徒朴守卿卒 守卿性勇烈 多權智 事太祖爲元尹 百濟 數侵新羅 太祖 命守卿 往鎮之 值萱再至 守卿 輒以奇計敗之……(中略)…… 勃城之役 太祖被圍 賴守卿力戰得出 庚子 定田制 特賜田二百結 及定宗 卽位之初 削平內難 守卿 功居

D-1과 D-2는 모두 朴守卿의 업적을 서술한 기록이다. 이 중에서 ‘勃城’이라는 지명이 주목된다. 근래의 연구에서 발성을 勃禦塹城의 줄임말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⁴¹⁾ 발어참성은 896년에 왕건이 축조한 개성의 외곽 성이다.⁴²⁾ 이러한 선행 연구의 비정에 따르면, 이 기록은 후백제의 공세가 개성 외곽의 방어선까지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발성 전투에서 왕건이 포위되었는데, 당시 박수경이 왕건을 피신시키는 업적을 세웠다.

발성 전투 기사는 C-2와는 별도의 기록으로 전한다. 따라서 발성 전투를 932년 예성강 기습과 동일한 사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발성을 발어참성으로 보는 선행연구의 비정, 염주·백주·정주와 개성의 거리 및 왕건이 포위되었다는 전투 상황을 고려하면, 발성 전투는 예성강 기습이 개성 외곽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박수경의 공로는 매우 높게 책정되어 D-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40년에 役分田을 분급할 때 200결의 토지가 수여되었다. 이

多 至是 子承位 承景 承禮 被讒下獄 憂患而卒”.

41) 이도학, 『후삼국시대 전쟁 연구』, 주류성, 2015, 375쪽. 여기에서는 武珍州를 武州, 漢山州를 漢州, 金馬城을 馬城으로 지칭한 사례를 들어 발성을 발어참성의 줄임 표기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발어참성에서 ‘禦塹’은 ‘방어하기 위한 참호’ 즉 壕字가 있는 성의 구조를 반영하므로, 발어참성의 순수한 고유 명칭은 ‘발성’으로 지적하였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이 견해를 수용하였다. 신성재, 『후삼국 통일전쟁과 운주전투』, 『軍史』 11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109~110쪽 ; 이창섭, 「고려 건국 직후 수군의 붕괴와 재건」,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7,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21, 22쪽.

42)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總序. “世祖時爲松嶽郡沙粲 乾寧三年丙辰以郡歸于裔 裔大喜 以爲金城太守 世祖說之曰 大王若欲王朝鮮·肅愼·下韓之地 莫如先城松嶽 以吾長子爲其主 裔從之 使太祖築勃禦塹城 仍爲城主 時太祖年二十”. 참고로 『고려사절요』에서는 ‘勃禦塹城’을 ‘勃禦城’으로 표기하여 차이를 보인다. 『高麗史節要』 卷1, 太祖 神聖大王 1년. “裔從之 使太祖築勃禦城 仍爲城主”.

는 特賜라는 언급이 있기에 일반적인 지급 규모보다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⁴³⁾ 이는 박수경의 군사적 공로를 고려 조정에서 크게 인정한 것이다. 여러 업적이 있었지만 왕건이 포위된 상황에서 구원했다는 기록은, 박수경의 주요 공적 중 하나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B-2에서 확인되듯이 벽란도에서 개성까지는 40리 거리에 있었다. 군대가 하루에 움직이는 거리를 1舍라고 하는데, 이는 하루에 행군할 수 있는 거리 즉 30里에 해당한다.⁴⁴⁾ 즉 40리는 하루이틀 정도의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 염주·백주·정주를 공격한 병력이 3일간 움직였다고 하였을 때, 분산된 병력이 습격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었다. 이 상황에서 후백제의 일부 병력이 개성 외곽에 접근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성 전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⁴⁵⁾

수도를 공격받는다면 왕이 직접 전투에 나서기보다는 수도에 주둔하는 방어군이 對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발성 전투는 왕건이 포위된 전투였다. 공격군에게 포위당한다면 방어할 때 포위되거나, 공격할 때 포위되는 경우가 있다. 방어할 때 포위되는 사례는 적이 城內로 진입하여 포위해야 하는데, 왕건이 지휘관이

43) 이상국, 「고려 초기 役分田의 분급형태」, 『史林』 22, 수선사학회, 2004, 4쪽.

44)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1,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662쪽. 『春秋左傳』에서 杜預의 주석에서는 1舍를 30里라고 하였고, 『呂氏春秋』에서 高誘의 주석에서는 군대가 30리 행군하는 것을 1舍라고 한다고 지목하였다. 오늘날 기준으로 1사 즉 30리는 11.78km로 환산할 수 있다. 아울러 40리는 15.71km로 환산할 수 있다.

45) 기존의 연구에서도 발성 전투 때 육상에서 소규모 군대가 애초부터 태조를 목표로 기습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이창섭, 「고려 건국 직후 수군의 붕괴와 재건」,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7,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21, 22쪽.

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 그렇다면 왕건이 후백제군을 공격하였다가 도리어 포위를 당했거나, 퇴각하는 후백제군을 추격하다가 逆襲을 당한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발성 전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이를 단순히 고려 왕실이 왕건의 패배를 詳述하는 것을 기피한 결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공산 전투처럼 왕건이 크게 패배한 사건도 「太祖世家」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발성 전투가 「태조세가」에 수록되지 않고, 박수경의 공적을 서술한 열전에만 간략하게 전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수경은 고려 초기의 공신으로 정종 즉위 초의 내란 평정에 공을 세웠으나, 964년(光宗 15)에 세 아들이 참소를 받아 투옥되면서 정치적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⁴⁶⁾ 이러한 정치적 배경은 발성 전투가 사건 자체의 전모보다 박수경이 태조를 구원한 공적을 중심으로 축약되어 전승된 사정과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다.

932년 후백제의 예성강 기습은 고려가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수도권 해상 기반을 타격한 사건이었다. 후백제는 염주·백주·정주의 선박 100척을 불태우고 저산도의 목마를 탈취함으로써, 고려의 해상 작전 기반과 군사적 자원에 큰 손실을 입혔다. 발성 전투 기록도 함께 고려하면, 이 기습전은 단순한 선박 소각과 물자 탈취에만 그치지 않고 개성 외곽의 방어망을 위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살펴본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932년 9월의 예성강 기습전은 고려 수도권의 해상 기반과 외곽 방어망에 상당한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46) 『高麗史』 卷92, 「列傳」 5, 諸臣, 朴守卿. “定宗初卽位 削平內難 守卿功居多 尋轉大匡 光宗十五年 子佐丞承位·承景·大相承禮等 被讒下獄 守卿憂患而卒 後累贈司徒·三重大匡”.

4. 예성강 기습 이후의 해상 공세와 고려의 대응

후백제의 해상 공세는 932년 9월의 예성강 기습으로 끝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후백제의 海軍將 尙哀가 大牛島를 공격하였고, 고려는 大匡 萬歲를 보내 구원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다. 본 장에서는 대우도 공격의 위치와 군사적 성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통해 후백제의 공세가 고려의 해상 방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E-1. 겨울 10월 진현의 海軍將 尙哀 등이 大牛島를 공격하여 약탈하자, 大匡 萬歲 등에게 명하여 구원하게 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다.⁴⁷⁾
- E-2. (태조) 14년(931) (庾黔弼이) 참소를 당해 鵠島에 귀양 보내졌다. 이듬해에 진현의 海軍 장수 尙哀 등이 大牛島를 공격하여 약탈하니, 태조가 大匡 萬歲 등을 보내어 가서 구원하게 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태조가 근심하였다. 유검필이 上書하여 말하기를, “신이 비록 죄를 지어 쫓겨났지만 백제가 우리 바닷가를 침략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신은 이미 제가 있는 섬과 包乙島에서 장정들을 선발하여 군대를 채우고 또 戰艦을 수리하여 방어하고 있사오니 주상께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태조가 서신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참소를 믿고 어진 이를 내쫓았구나. 이는 내가 밝지 못

47) 『高麗史』 卷2, 「世家」 2, 太祖 15년. “冬十月 甄萱海軍將尙哀等攻掠大牛島 命大匡萬歲等救之 不利”.

해서이다.”라고 하였다. 사신을 보내 불러들여 그를 위로하기를, “경은 실로 죄 없이 유배를 당하였는데도 원망하거나 분통해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도울 생각만 하니 내 참으로 부끄럽고 후회된다. 부디 포상이 후세에 미치게 하여 경의 충절에 보답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⁴⁸⁾

E-1은 후백제의 상애가 대우도를 공격하자, 고려에서 대광 만세를 보내 대적하였지만 승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高麗史節要』에서도 유사한 기록이 확인되나, 庾黔弼傳의 기록까지 함께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⁴⁹⁾

E-1보다 좀 더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E-2이며, 여기에서는 유검필의 대응도 함께 수록되었다. E-2에서 유검필은 鵠島에 귀양간 상황이었음에도, 후백제에 대적할 계획이 있음을 밝힌 내용이다. 기록만 보아서는 유검필이 적극적인 방어전에 나섰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려 입장에서는 후백제에 의해 주요 선박군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유검필의 장정 선발과 전함 수리는 최소한의 해상 방어력과 선박 운용 기반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E-2에서는 3곳의 섬 즉 대우도와 곡도, 포을도가 기록되었다.

48) 『高麗史』 卷92, 「列傳」 5, 諸臣, 庾黔弼. “十四年 被讒竄于鵠島 明年甄萱海軍將尙哀等 攻掠大牛島 太祖遣大匡萬歲等往救 不利 太祖憂之 黔弼上書曰 臣雖負罪在貶 聞百濟侵我海鄉 臣已選本島及包乙島丁壯 以充軍隊 又修戰艦以禦之 願上勿憂 太祖見書泣曰 信讒逐賢 是予不明也 遣使召還 慰之曰 卿實無辜見謫 曾不怨憤 惟思輔國 予甚愧悔 庶將賞延于世 報卿忠節”.

49) 『高麗史節要』 卷1, 太祖 神聖大王 15년. “冬十月 百濟海軍將尙哀等攻掠大牛島 王遣大匡萬歲等 往救之 我軍不利 王憂之 庾黔弼自鵠島上書曰 臣雖負罪在貶 聞百濟侵我海鄉 臣已選丁壯 修戰艦 欲禦之 願上勿憂 王見書 泣曰 信讒逐賢 是予不明也 遣使召還 慰之曰 卿實無辜 不曾怨憤 唯思輔國 予甚愧悔 庶將賞延于世 報卿忠節”.

이 섬들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료들이 참고된다.

- F-1. 大牛島[군의 남쪽 80리에 있다].⁵⁰⁾
- F-2. 白翎島가 현의 서쪽에 있다[물길이 70리인데, 나랏말 170필을 놓아 먹인다. 예전에는 鵠島라 하였다].⁵¹⁾
- F-3. 고려 태조 15년(932), 甄萱이 海軍將 尙哀 등에게 시켜 大牛島를 공격하여 약탈하게 하였다[위치는 미상이다]. 庾黔弼이 이때 鵠島에 귀양가 있었는데, 本島와 包乙島[즉 靑島이다]에서 장정들을 뽑고, 또 戰艦을 수리하여 적을 막았다.⁵²⁾

F-1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으로, 龍川郡을 기준으로 남쪽 80리에 대우도가 위치한다는 내용이다. 『東國輿地志』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기록이 남아 있다.⁵³⁾ 다만 대우도의 위치를 용천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그대로 따르면 대우도는 평안도 용천군 남쪽 해역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용천 일대는 훗날 江東 6州 가운데 龍州로 편제되는 지역으로, 고려가 이 지역을 확보한 시점은 993년 徐熙의 담판 이후였다. 따라서 932년 후백제의 수군이 고려의 대우도를 공격하였다는 기사와 연결하기에는 시기상 무리가 있다.

필자는 당시 전황으로 보았을 때, 대우도를 서해 중부 또는 경기만 일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후백제는 932년 9월

50) 『新增東國輿地勝覽』卷53, 「平安道」, 龍川郡, 山川. “大牛島[在郡南八十里]”.

51) 『世宗實錄』卷152, 「地理志」, 黃海道, 海州牧, 長淵縣. “白翎島在縣西[水路七十里 放國馬一百七十匹 古稱鵠島]”.

52) 『大東地志』卷17, 「黃海道」, 白翎島鎮, 典故. “高麗太祖十五年 甄萱海軍將尙哀等攻掠大牛島[未詳] 庾黔弼時在鵠島謫所 選本島及包乙島[即靑島] 丁壯 又修戰艦以禦寇”.

53) 『東國輿地志』卷9, 「平安道」, 龍川郡, 山川. “大牛島[在郡南八十里]”.

예성강 기습을 통해 염주·백주·정주의 선박 100척을 불태웠고, 이어 10월에는 대우도를 공격하였다. 이 두 사건이 한 달 간격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우도 공격은 예성강 기습과 무관한 일회성의 우발적 약탈이라기보다, 고려의 해상 방어력을 계속 압박함으로써 후백제의 해상 공세 효과를 확대하려 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로서는 100척의 배가 불탔기에 주변 해역의 대체 선박과 병력을 급히 동원해야 하였고, 후백제는 고려가 해상 방어 전력을 다시 결집하기 전에 이들을 약화시키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대우도는 고려의 잔여 수군이 동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위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기만 일대로 위치를 비정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F-1에 기술된 것처럼 대우도의 위치를 압록강 이남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대우도의 위치를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앞바다의 섬으로 지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⁵⁴⁾ 이 외에 경기도 안산의 선재도 즉 小牛島 옆에 위치한 대부도를 대우도로 지목한 견해도 제기되었다.⁵⁵⁾ 이 중에서 전자의 경우에는 서산시 가로림만 내에 위치한다. 당시 대우도 공격은 고려 수도권의 해상 방어망을 겨냥한 후속 공세로 이해되므로,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권과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부도설은 경기만 수로권에 위치하고, 주변에서 牛島 계열의 지명이 확인되기에 검토의 여지가 있다.

F-2는 『世宗實錄』 地理志의 기록으로, 鵠島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에 해당한다. 곡도의 위치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이 외에도 『新增東國輿地勝覽』·『東國輿地志』·『燃藜室記述』에 관련 기록

54)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해양쟁패전」, 『한국중세사연구』 47, 2016, 278쪽.

55) 이창섭, 「고려 건국 직후 수군의 붕괴와 재건」,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7,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21, 27쪽.

이 남아 있다.⁵⁶⁾ 해당 기록들에서는 모두 곡도를 지금의 백령도로 지목하고 있다. 백령도는 개성에서 직선거리로 160km 정도 떨어진 서해상의 섬으로, 예성강 하구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었다. 유점필은 곡도와 포을도에서 병력을 모집하여 후백제군에 대응할 수 있는 水軍을 갖추었다고 하였다. 포을도는 F-3에 따르면 靑島라고 하였는데, 이는 大靑島와 小靑島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유점필의 군대는 상애의 군대에 맞서 대우도를 방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E-2에서는 “又修戰艦以禦之”라고 하였고, F-3에서도 “又修戰艦以禦寇”라고 하였기에, 유점필에 의해 고려군의 후백제군 방어가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백령도에서 함대를 조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귀양 간 장군이 병력을 징발하여 훈련시킬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병력을 징발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소수의 병력을 준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후백제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守勢를 취하면서 추가 공격을 저지하는 정도가 현실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기록은 유점필의 충절과 공적을 강조하는 열전 서술 속에 전하므로, 실제 군사적 성과의 규모를 판단할 때에는 일정한 주의가 필요하다.

『三國遺事』에 따르면 해적이 와서 근심이 되니 廣學과 大緣의 두 大德에게 청하여 법을 만들어 진압하게 하였고, 태조가 現聖寺를 창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⁵⁷⁾ 학계에서는 이 기록을 후백제의 공

56)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黃海道」, 康翎縣, 建置沿革. “白翎島本高句麗鵠島 高麗稱白翎鎮 顯宗置鎮將”; 『東國輿地志』卷6, 「黃海道」, 長淵縣, 山川. “白翎島[在大靑西 水路△△ 周△△△△ 本高句麗鵠島]”; 『燃藜室記述』卷16, 「地理典故」, 州郡. “康翎 永康縣 高句麗付珍伊 高麗初改永康置縣 太宗甲午 併於長淵 尋復舊 白翎島 高句麗鵠島 高麗置白翎鎮”.

57) 『三國遺事』卷5, 第6 「神呪」, 明朗神印. “及我太祖創業之時亦有海賊來

격과 연관하여 보며, 고려 왕실에서는 불교의 힘을 빌려서 민심을 수습하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⁵⁸⁾ 이러한 상황에서 유검필의 장정 선발과 전함 수리는 후백제의 해상 공세에 대응하여 연해와 도서 지역의 방어 태세를 정비한 사례로 볼 수 있다.⁵⁹⁾ 유검필의 대응은 후대 열전 서술에서 그의 충절과 공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G-1. 18년(935) 태조가 여러 장수에게 말하기를, “羅州 경계의 40여 郡은 우리의 울타리로서 오래전에 항복하여 교화를 입어 왔다. 일찍이 大相 堅書·權直·仁壹 등을 보내어 가서 위무하게 하였다. 근래에 백제의 침략을 받아 6년 동안 바닷길이 통하지 않으니, 누가 나를 위해 (나주를) 위무하겠는가?”라고 하였다.……(중략)……公萱·大匡 梯弓 등이 아뢰기를, “유검필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말하기를, “나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 신라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유검필이 가서 통하게 해주었다. 짐은 그러한 노고를 생각하여 감히 다시 명을 내리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유검필이 말하기를, “신의 나이가 이미 노쇠하였지만, 이러한 국가의 큰일에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태조가 기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경이 만약 명을

擾 乃請安惠·朗融之裔廣學·大緣等二大德作法讓鎮 皆朗之傳系也 故并師而上至龍樹爲九祖[李寺記三師爲律祖 未詳] 又太祖爲創現聖寺爲一宗根柢焉”.

58) 韓基汶, 「高麗時代 開京 現聖寺의 創建과 神印宗」, 『歷史教育論集』 26, 역사교육학회, 2001, 478~479쪽 ; 이창섭, 「고려 건국 직후 수군의 붕괴와 재건」,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7,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21, 30~31쪽.

59) 신성재, 「나말여초 백령도와 유검필의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 26,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6, 24쪽.

받든다면, 어떤 기쁨이 이와 같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유검필을) 都統大將軍으로 삼았다. 禮成江에 가서 전송하였는데, 御船을 하사하여 보냈다. (예성강에) 3일을 머무르며 유검필이 바다로 떠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돌아왔다. 유검필은 나주에 가서 잘 經略하고 돌아왔고, 태조는 또 예성강으로 행차하여 그를 맞으며 위로하였다.⁶⁰⁾

G-2. 甄萱이 금산사에 있는 지 3개월만인 6월에 막내아들 能乂, 딸 哀福, 총애하는 첩 姑比 등과 더불어 錦城으로 달아나 사람을 보내 태조에게 만나기를 청하였다. 태조가 기뻐하여 장군 黔弼, 萬歲 등을 보내 水路를 경유하여 가서 그를 위로하여 맞아오도록 하였다. (진훤이) 도착하자 두터운 예로써 대접하였다. 진훤이 10년 연장자라고 하여 높여서 尙父로 삼았다.⁶¹⁾

932년 이후 양국 사이의 별도 해상 전투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으며, 전쟁의 중심은 다시 육상으로 옮겨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934년의 운주성 전투가 있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비록 해상 공격으로 선박 운용 기반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930년의 고창 전투에 이어 육상에서 고려의 優勢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고려의 수군 재정비 과정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60) 『高麗史』 卷92, 「列傳」 5, 諸臣, 庾黔弼. “十八年 太祖謂諸將曰 羅州界四十餘郡 爲我藩籬 久服風化 嘗遣大相堅書·權直·仁壹等往撫之 近爲百濟劫掠 六年之間 海路不通 誰爲我撫之……(中略)……公萱·大匡悌弓等奏曰 黔弼可 太祖曰 予亦已思之 但近者新羅路梗 黔弼往通之 朕念其勞 未敢再命 黔弼曰 臣年齒已衰 然此國家大事 敢不竭力 太祖喜垂涕曰 卿若承命 何喜如之 遂以爲都統大將軍 送至禮成江 賜御船遣之 因留三日 候黔弼下海 乃還 黔弼至羅州 經略而還 太祖又幸禮成江 迎勞之”.

61) 『三國史記』 卷50, 「列傳」 10, 甄萱. “萱在金山三朔 六月 與季男能乂·女子哀福·嬖妾姑比等 逃奔錦城 遣人請見於太祖 太祖喜 遣將軍黔弼·萬歲等 由水路勞來之 及至 待以厚禮 以萱十年之長尊 爲尙父”.

G-1은 935년 고려가 다시 예성강에서 나주 방면으로 선단을 운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나주 지역은 후백제의 후방이자 反攻의 교두보였으며, 惠宗 王武의 고향이자 외척 세력의 근거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려가 후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영역이었으므로 왕건은 나주 회복을 재추진하였다. 유검필은 예성강에서 출항하여 나주를 경략하고 돌아왔으며, 이는 고려가 다시 서남해 방면으로 해상 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유검필이 나주를 경략한 사건은 후백제의 예상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G-2에서 확인되듯이 이 해상로는 진훤이 고려로 귀순하는 경로로도 활용되었다. 진훤은 神劍의 정변 이후 金山寺에 유폐되었다가 이곳을 빠져나와 錦城 즉 나주로 향하였다. 진훤의 귀순 의사를 들은 왕건은 유검필과 만세를 보냈다. 만세는 932년 대우도 구원에 파견된 인물로, 해상 작전과 관련하여 다시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검필과 만세가 수로를 통해 진훤을 맞이하였다는 기록은, 고려가 서해안과 서남해 방면의 해상 운용 능력을 상당 부분 회복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진훤은 개성으로 와서 왕건의 환영을 받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후삼국 통일이 이루어졌다.

932년 예성강 기습과 대우도 공격은 고려의 해상 작전 기반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후백제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인 해상 우위로 연결하지 못하였다. 유검필의 장정 선발과 전함 수리는 후백제의 공세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보여주며, 935년 나주 경략은 고려가 다시 서남해 방면으로 선단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932년 9월 후백제의 예성강 기습과 같은 해 10월의 대우도 공격을 연속적인 해상 공세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고려의 대응과 해상 작전 능력의 회복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의 지리적 성격, 염주·백주·정주와 저산도라는 공격 대상의 성격, 발성 전투와 예성강 기습의 관련 가능성, 대우도 공격과 유검필의 대응, 나주 해상로 회복 문제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검토하였다.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는 고려의 성장 기반이자 개경으로 이어지는 해상 교통로였다. 전포·이포·벽란도 등 예성강 하류의 포구들은 대외 교통과 사행의 통로로 기능하였고, 개성은 예성강을 통해 경기만과 연결되는 정치적·군사적 거점이었다. 그러나 평시의 교통·교역상의 이점은 전시에는 외부 선단이 고려 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취약성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932년 예성강 기습은 바로 이와 같은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의 이중적인 성격을 후백제가 군사적으로 이용하여 펼친 작전이었다.

후백제는 932년 9월 수군을 동원하여 예성강에 진입한 뒤, 염주·백주·정주의 선박 100척을 불태우고 저산도의 목마 300필을 탈취하였다. 염주·백주·정주는 개성과 가까운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권에 위치한 지역으로, 고려의 선박 집결지이자 해상 작전 기반으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고려 수도권의 해상 기반을 겨냥한 공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발성 전투 기록을 함께 고려하면, 예성강 기습은 개성

외곽의 방어막을 위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같은 해 10월의 대우도 공격은 후백제의 해상 공세가 예성강 기습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우도의 위치는 예성강 기습 직후의 전황을 고려하면 경기만을 포함한 서해 중부 해역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공격은 후백제가 고려의 해상 방어력을 계속 압박하려 한 후속 공세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유검필은 곡도와 포을도에서 장정을 선발하고 전함을 수리하였는데, 이는 고려가 후백제의 해상 공세 이후 해상 방어력을 회복해 가는 하나의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935년 유검필이 예성강에서 출항하여 나주를 경략한 사실은 고려가 다시 서남해 방면으로 선단을 운용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진훤의 귀순이 금성에서 수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나주 해상로의 회복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예성강 기습의 전략적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고창 전투 이후 불리해진 후백제가 해상 공세를 통해 정세를 반전시키려고 한 시도였고, 예성강과 경기만 수로를 이용하여 고려 수도권의 해상 접근로를 타격한 작전이었다. 또한 염주·백주·정주의 선박과 저산도 목마를 공격함으로써 고려의 해상 기동력과 군사 자원을 약화시켰으며, 나주 방면 해상로의 재개를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후백제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인 해상 우위로 연결하지 못하였고, 고려는 이후 수군을 재정비하여 나주 해상로를 회복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932년 9월의 예성강 기습과 같은 해 10월의 대우도 공격은 개별적인 약탈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전개된 해상 공세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유검필의 해상 방어력 정비

와 935년 나주 해상로 회복을 함께 살펴보면, 후백제의 공세에 대응하여 고려가 해상 작전 능력을 재정비해 나간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후백제가 서해 수로를 활용하여 고려의 핵심 해상 기반을 타격할 수 있었던 해상 작전 주체였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世宗實錄』 『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輿圖備考』 『燃藜室記述』 『大東地志』 『宣和奉使高麗圖經』 『宋史』

2. 단행본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리지 수도권편』,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7.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1,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신성재,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해안, 2016.
이도학, 『후삼국시대 전쟁 연구』, 주류성, 2015.
이도학, 『후백제 진훤대왕』, 주류성, 2015.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역주 삼국사기 2: 번역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韓國海洋戰略研究所, 2009.
왕평 편, 『표점 교감 전자배판 전운옥편(全韻玉篇)』, 도서출판3, 2016.

3. 논문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기병 운영에 대한 검토」, 『軍史』 10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김수태, 「후백제의 대신라·고려 관계」, 『한국중세사연구』 41, 한국중세사학회, 2015.
邊東明, 「後百濟의 海上活動과 對外關係」, 『한국고대사탐구』 19,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5.
신성재, 「후백제의 수군활동과 전략전술」, 『한국중세사연구』 36, 한국중세사학회, 2013.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해양쟁패전」, 『한국중세사연구』 47, 한국중세사학회, 2016.

- 신성재, 「나말여초 백령도와 유금필의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 26,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6.
- 신성재, 「후삼국 통일전쟁과 운주전투」, 『軍史』 11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 李王茂, 「조선후기 수도권 방위체제의 정비와 군사도시화 경향」, 『軍史』 9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4.
- 이상국, 「고려 초기 役分田의 분급형태」, 『史林』 22, 수선사학회, 2004.
- 이창섭, 「고려 건국 직후 수군의 붕괴와 재건」,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7,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21.
- 정은정, 「고려 개경과 경기의 공간구조와 변동」, 『한국중세사연구』 85, 한국중세사학회, 2026.
- 韓基汶, 「高麗時代 開京 現聖寺의 創建과 神印宗」, 『歷史教育論集』 26, 역사교육학회, 2001.

〈Abstract〉

Later Baekje's Maritime Offensive in 932 and Goryeo's Response

Song, Young-dae

This study interprets Later Baekje's September 932 raid on the Yeseong River and its attack on Daeudo the following month as successive phases of a maritime offensive, and examines Goryeo's response. The Yeseong River-Gyeonggi Bay waterway linked Gaeseong with the West Sea. Its ports served overseas exchange and diplomatic missions in peacetime but could provide hostile fleets with access to Goryeo's capital region in wartime.

In September, Later Baekje's navy entered the Yeseong River, burned 100 ships at Yeomju, Baekju, and Jeongju, and seized 300 horses from Jeosando. These areas may have served as concentration points for Goryeo ships and as maritime operational bases. The raid therefore targeted not merely coastal settlements but the maritime infrastructure and military resources of Goryeo's capital region. The Balseong record also suggests that it threatened Gaeseong's outer defenses.

The October attack on Daeudo was a follow-up offensive. Its location should be reconsidered within the central waters of the West Sea, including Gyeonggi Bay. Yu Geom-pil responded by recruiting able-bodied men on Gokdo and Poemdo and repairing warships. His 935 campaign in Naju demonstrates Goryeo's recovery of maritime operational capacity in southwestern waters; the restored Naju route was later used in Jin Hwon's defection to Goryeo.

Ultimately, Later Baekje's 932 offensive sought to reverse its unfavorable position after the Battle of Gochang. It struck Goryeo's maritime infrastructure but failed to secure lasting maritime superiority, while Goryeo rebuilt its defenses and restored the Naju route.

Key Words : Yeseong River raid, attack on Daeudo, Later Baekje maritime strategy, Goryeo navy, Gyeonggi Bay waterways, Naju maritime route, Yu Geom-pil, Later Three Kingdoms unification war

원고투고일 : 2026.07.09. 심사수정일 : 2026.08.22. 게재확정일 : 2026.09.09.